

총장 직선제 23년만에 폐지

지난 21일 실시된 투표서 찬성 68.7%로 폐지 결정

‘총장 후보직선추천제도’ 폐지를 묻는 교직원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정됐다.

지난 21일 학내 1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투표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찬성표가 유효 투표 483표의 과반

수인 332표(68.74%)를 차지, 폐지 반대 151표(31.26%)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교수 427명, 직원 276명이 참여해 78.45%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권은 교수는 1인 1표, 직원은 전임교원 대비 11%를 반영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교직원들은 ‘총장 직선제’ 교수보다는 대학운영 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

이된다. 교과부의 2단계 선진화 정책에 따라 가산점 없이는 교육 역량강화사업 유치 실패와 국책사업 신청자격 배제, 구조개혁중점 추진대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학칙개정안을 마련한 후 공고 및 학내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1989년부터 23년간 유지해왔던 총장 후보 직선 추진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직선제 교수보다 대학운영 안정에 무게

본부 “구조개혁대상 각오하면서 유지하는 건 무리”
교수회 “투표 강행시 전 임원 사퇴 불사 투쟁”

21일 실시된 ‘제주대 총장 후보직선추천제도 개선’ 선거결과를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가 결정됐다.

이번 투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6일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학에게 교육강화사업비에 대한 가산점을 5% 부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치러졌다. 대학의 자율권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대학구성원들이 찬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로 제주대는 교육강화사업비에 대한 가산점 5%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국책사업을 유지하는데 이익을 받게 됐고 재정지원제한 및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행·재정적인 제한 때문에 선진화 여부가 불확실한 제도에 찬성한 부분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총장직선제가 폐지되면서 대학의 자율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

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이미 법령에는 총장을 대학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선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적·재정적인 제한을 통해 반강제로 총장직선제를 폐지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교수사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건 선진화 방안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을 없애가면서 정부에 입맛에 맞게 고쳐가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학본부도 재정지원과 연계되다 보니 총장직선제 폐지 절차에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허나 재정지원을 못받고 구조개혁대상 대학에 선정될 경우 구성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지원금이 대학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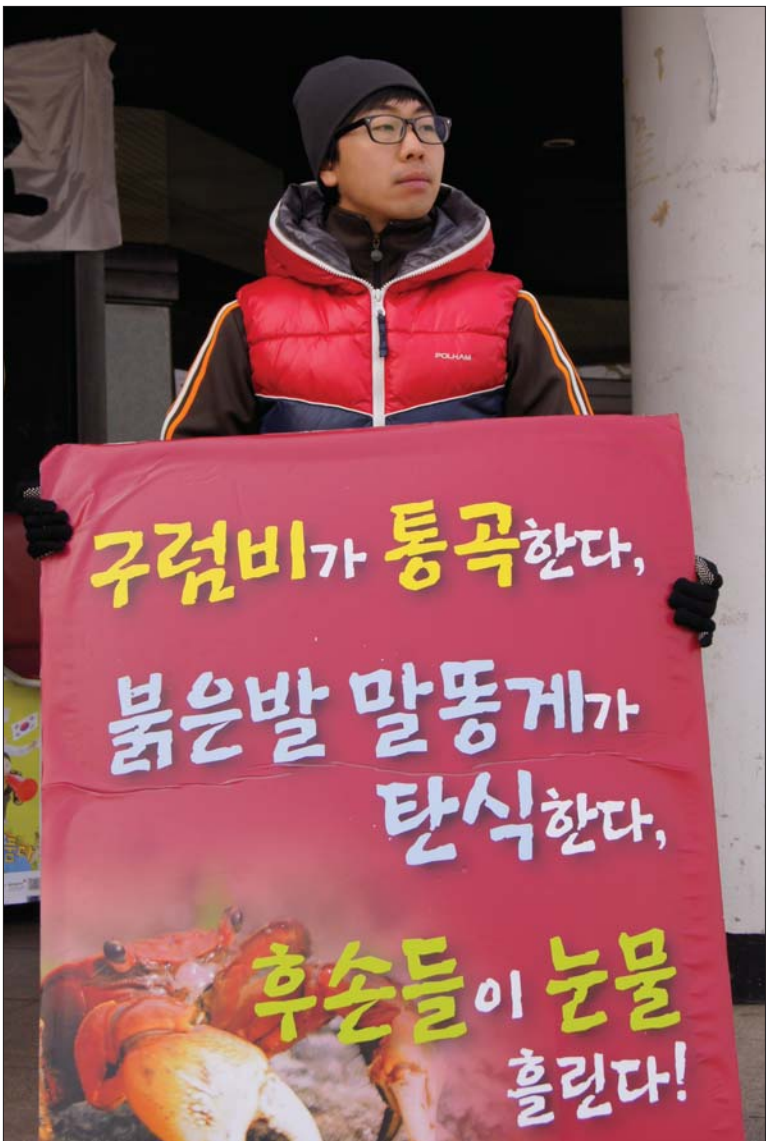
허창진 총장은 지난 19일 대학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총장직선제가 유지되면 주요 국책사업의 배제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며 “학문적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회생을 강요할 수 있기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대비와 총장직선제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직선제 폐지가 진정성 있는 대학의 개선안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투표 결과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도 대학 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은 심해질 전망이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 19일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강행하면 교수회 임원 모두가 사퇴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와 관련 20일 오전 대학홈페이지 제주대소식에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참여거부를 선언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총장직선제 참여거부를 모든 교수들에게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구럼비를 살려주세요” 전호광(수의학과 2)씨가 지난 10일 학생회관 입구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9일 학생회 중앙위 성명
일부선 “찬성이나 반대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군, 제주도정 및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학생들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9일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학내 게시판, 제주대 누리집 자유통계시판을 통해 성명서를 냈다.

중앙위는 성명서에서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럼비 바위 폭파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과 대립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발파허가를 받은 지 하루도 안 돼 해군의 구럼비 해안 발파가 시작돼 지난 8일 강정마을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해군기지 공사 진행 과정은 폭발소리와 함께 많은 제주도민들의 우려와 원성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에 이해득실이 걸린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며 평화의 섬 제주도를 갈등과 대립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해군, 제주도정과 정당, 시민단체들은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위는 “국립대 중앙운영위로서 지역문제에 무관심했다”며 “아울러 학생들도 지역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중앙위의 해군기지 관련 성명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현관(인문대학 2학년)에 붙여졌던 중앙운영위원회의 포스터에 누군가 ‘찬성이나 반대냐 입장표명을 확실히 해라’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정준호(총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내에 해군기지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도 있고 반대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라며 “차후 활동으로 중앙운영위를 통해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지 기자

“4·3 피해자 위로하고 학생들의 사회의식 깨우고파”

기부금 모아 4·3유족에게 전달할 계획

“팔찌를 통해 사람들이 잊고 있는 4·3항쟁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아픈 기억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제주대 학생들이 모여 4·3 희생자 유가족을 돕고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4·3팔찌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인공은 한승효(법학부 4, 팀장), 강상균(전기공학과 4), 박해인(철학과 3)씨 등 16명의 학생들.

이들이 내건 프로젝트 이름은

‘here Now’다. 이는 ‘here and now’의 약자다. 4·3으로 아무 잘못 없이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지금 세대와 소통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3 희생자로 인정받지도 못해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지내는 4·3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들은 팔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한씨는 “이는 4·3 피해자들의 영혼과 아픔을 사람들이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나누고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강



‘here Now’ 팀. 이랫줄 세번째 한승효(법학부 4)씨가 리더를 맡고 있다.

조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든 팔찌를 다음 달부터 학생회관, 제주시청 일대에서 배급할 계획이다.

한승효씨는 “의식 있는 다른 대학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 ‘지역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반성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다른 학생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2012
신간모음

제주대학교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건축계획론

개정판
건축계획론

김태일 지음

제주대학교출판부

생활패턴과 삶의 공간이 변화하는 사회변화를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다룬 책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중점을 두면서도 새롭게 내용들을 추가한 책이다.

저자명: 김태일 지음 / 평가: 16,000원

해양생산기기가학

수정증보판
해양생산기기가학

김용래·서두옥·이대경·조봉곤·이창현

제주대학교출판부

수산계 대학에서 어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강의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어선어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참고서로도 이용되고 기본적인 사항의 이해에 중점을 둔 책이다.

저자명: 김용래, 서두옥, 이대경, 조봉곤, 이창현 지음 / 평가: 14,000원

형사소송법 강의

【증보 개정판】
형사소송법 강의

김현수 저

제주대학교출판부

이번 제 3판은 그간의 판례 동향과 학설의 흐름 및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중요 판례의 요지를 각주에 가급적 많이 인용하여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

저자명: 김현수 지음 / 평가: 20,000원

사설

갈등을 봉합하고 지혜롭게 정진하자

많은 논란 끝에 ‘총장후보직선추천제도 개선’ 교직원 투표가 끝났다. 사실 이번과 같은 ‘올며 겨자 먹기’ 식 투표는 치러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투표였다. 투표에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참여한 교직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흔쾌히 투표를 다녀온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대학본부에서는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학선진화 방안 시행에 따른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 및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 평가 지표와 맞물려 교육정책으로 교직원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도모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게 대학본부가 내세운 논리였다.

교수회는 투표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총장직선제 고수를 관철시키려 했다. 교과부가 예산지원 등을 무기 삼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이기에 결단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장직선제야말로 대학민주화의 상징적 성과물인데 1년도 안 남은 정권에 굴복해서야 되겠느냐는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나타났다. 안정적 대학운영을 희망하는 다수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셈이다. 대학본부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교육역량강화사업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뿐, 새로운 총장선출제도 마련에 부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반드시 선정되어야

할 무거운 짐을 대학본부가 떠안았다. 교수회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면서 직선제 폐지에 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소한 전년도 45억 정도의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의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대체 그 45억을 어디다 쓴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구성원들이 적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전년도에 집행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집행내역 가운데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교수역량 강화 지원, 학습력 제고 지원 사업비 등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구성원 간의 갈등이다. 이번 일로 인해 교수회 임원진이 총사퇴를 선언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학사회에서 이번과 같은 중차대한 일이 어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는 가운데 대학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끄러운 투표는 끝났으니,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자.

독서, 나를 찾는 길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은 익숙하지 않은 대학 문화와 자유 속에서 1년을 좌충우돌하며 보낸다. 그리고 2학년을 맞아 이제 자기를 돌아보며 무엇을 할지 감을 잡는다. 학기 초 ‘새내기들을 위한 글’을 소개하는 가운데, “옛 사람들은 독만권서(讀萬卷書) 행만리로(行萬里路), 즉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하는 속에 인생의 답이 들어 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새내기들을 위한 글이었지만 오히려 2,3학년들이 공감하는 바가 더 컸다.

조선 후기 아정(雅亭, 혹은 靑莊館) 이덕무(李德懋, 1741~1793)를 당시 사람들은 ‘간서치(看書痴)’, 즉 책만 보는 바보라고 불렀다. 아정은 이 소리를 싫어하지 않았다. 서자(庶子)여서 글을 읽어 깨우친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양반이라 땀 흘려 일하지도 못하여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그는 책을 읽었다.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이 되어 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자료를 모아 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후에도 책을 읽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책상 위의 넓은 책 한 권이 이 세상에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단 책을 펼치고 보면 그 속에 담긴 세상은 끝이 없고 아득하다고. 책과 책을 펼쳐 든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기껏 앓은키를 넘지 못하지만, 책과 내 마음이 오가고 있는 공간은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다 할 만큼 드

넓고도 신비롭다고.

80년대 대학생들의 삶은 고뇌였다. 그래서 책을 읽었다. 사회과학서에서부터 철학서, 수필, 시 등 다채로운 책을 읽었던 이유는, 독서 외에 다른 낙(樂)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낙이 너무 많아 책을 읽지 않는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학생도 있었다.

왜 책을 읽을까? 아정의 표현대로 책 속에는 무한한 세계, 우주, 진리가 있다. 20대와 40대는 그것을 흡수하는 게 다르다. 20대는 모든 것을 스핀지처럼 흡수하지만 40대는 필요한 것만 흡수한다. 20대의 독서는 참 나를 찾기 위해 필요하고, 인생의 본질을 알기 위해 필요하고, 다양한 삶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 대학 주변 서점들이 문을 닫고 카페와 맥주집이 들어선다고 걱정한다. 대학 도서관 대출도서 1위가 대중소설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지하철을 타면 누구나 스마트폰에 자신을 맡기고, 손에 책을 든 사람은 보기 어렵다.

20대는 책을 읽어야 한다. 왜냐고 묻는 우문(愚問)에 대한 현답(賢答)은 스스로 독서를 통해 찾아야 한다. 우리 학교 기초교육원에 ‘북적북적’ 프로그램이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읽는 그 한 권 한 권의 책이 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새 학기, 책 사는 데 용돈을 쓰고, 책 읽는 데 시간을 쓰자. 그게 대학생으로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열려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출범식이 지난 12일 총대의원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렸다. 출범식에는 각종 부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관련기사 5면>

14일 열린 총학생회 출범식에는 △오프닝 행사 △즉석 참여 게임 △단대별 장기자랑 △출범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13일 열린 제 27대 ‘여자친구’ 총여학생회 출범식에는 △아침인사 △학장님께 여성경찰병 공문드림 △지구경영부안 예방주사 홍보 및 접수 등 다양한 부스 및 프로그램 개최 △도전 99조를 잡아라! △고사 순으로 진행됐다.

12일 열린 제 28대 기준하나 총대

의원회 출범식에는 △각종 게임 △우리는 기준하나! △단체게임 △몸으로 말해요 △난 절대음감 △고사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리연합회는 출범식을 따로 하지 않고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대통령 폴리를 개최하는 것으로 출범식을 대신한다.

각 단과대학들도 15일 해양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시작으로 16일 경상대학, 야간강좌부 19일 공과대학 20일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21일 인문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육대학 순으로 출범식을 진행했다. 또 22일 예술디자인대학, 23일 수의대학 28일 사범대학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준호 총학생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4일 학생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다. <홍보협력팀 제공>

정준호 총학생회장은 “출범을 계기로 더욱더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인문대학 건물 이름 ‘진양관·비현관’으로

<1호관> <2호관>

단과대학 처음 건물명 지어

인문대학 1호관과 2호관의 건물명이 각각 ‘진양관’과 ‘비현관’으로 정해졌다.

인문대학은 지난해 11월 열린 학과장 회의에서 1호관의 명칭을 ‘진양관(震央館)’으로 확정하고 2호관의 명칭을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인문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호관의 건물명을 공모한 결과 12월 8일 ‘비현관(丕顯館)’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인문대학은 학내 단과대학 최초로 건물에 이름을 부여하게 됐다.

1호관의 건물명 ‘진양’은 ‘율림의 중앙’이라는 긍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으나, 지진과 맞물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돼 왔다. ‘크게 드러나다’라는 뜻의 ‘비현’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진양’과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왕세자가 공부하는 곳이었던 ‘비현각’ 과도 연계돼 학문수양에도 힘을 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임동춘(중어중문학과) 인문대학



인문대학 2호관 건물에 비현관이라고 쓰여 있다. 김동현 기자

학장은 “1호관, 2호관 처럼 숫자에 매기는 것은 오직 관리용으로 지어진 명칭으로 인문학도들이 보기에 딱딱하게 비춰진다”며 “대학건물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건물에 의미가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행정대학원, ‘먼저 변화라...’ 펴내

고영철(언론홍보학과 교수) 전 행정대학원장과 황경수(행정학과 교수) 공개강좌과정 임교수가 강의 모음집 <21가지의 지식과 지혜>를 발간했다.

이 책은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과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됐던 강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책은 한 조직의 관리자 혹은 리더로서 알아야 할 경영·경제 관련 트렌드와 상식, 생로병사를 초월한 건강한 삶의 비법, 최강의 조직과 성공의 리더십,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이야기 등을 다뤄 행정대학원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고영철 전 행정대학원장은 발간사에서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고급관리자 과정과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원생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들었던 89개 강좌



가운데 여러분께서 배게 옆에 두고 수시로 꺼내보시면 좋을 21개의 강의 내용을 골라 책자로 발간하게 됐다”며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21가지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머리맡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 이름을 ‘21가지의 지식과 지혜’라고 지었다”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법전원, 제주마짚과 산학협력 체결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장곤 법학과 교수)이 (사)제주마짚(회장 한상웅)과 지난 14일 법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고 원생들이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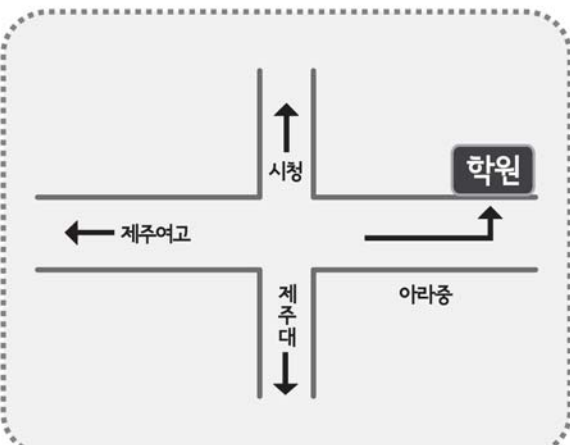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주마짚에게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마짚은 △실무경험기회 제공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심과 참여 등을 약속했다.

김동현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어교육 중심에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주요 위탁교육 실시 현황 ☜				
년도	위탁기관	교육대상 인원	교육내용	
2009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초등학생 100	JDC 사랑나눔 영어캠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사 137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2회)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분무원 22	장기영어캠프과장	
	제주물산업인력개발센터	소속학생 105	토익강좌, 영어캠프(2회)	
	한양대학교진도산업인력개발센터	소속학생 60	초급, 중급 TOEIC 강좌	
2010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초등학생 100	JDC 사랑나눔 영어캠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사 96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2회)	
	한양대학교진도산업인력개발센터	소속학생 31	정중영어회화	
	취업전략본부	대학생 35	해외인턴십 자체연수(2회)	
	제주물산업인력개발센터	소속학생 70	토익강좌(2회)	
2011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초등학생 101	JDC 사랑나눔 영어캠프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중등교사 88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2회)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분무원 33	영어, 일어, 중국어	
	제주물산업인력개발센터	소속학생 101	영어 캠프, 토익강좌(2회)	
	취업전략본부	대학생 63	해외인턴십 자체연수(5회)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81~2282, http://fll.jeju.ac.kr

제32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3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72호(2012년 7월 4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낼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태양열발전 설비공사…공사소음·진동으로 불만 많아

‘울퉁불퉁’ 도로, 휠체어 통행막아
경영사업단 “평일 소음공사 자제”

울퉁불퉁한 도로, 온갖 공사장비와 소음, 3월 제주대의 모습이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투자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본관, 인문대학 1호관, 사회과학대학 등 총 14개 건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공사와 각 건물 옥상에서 모인 태양 에너지를 변전소에 모으기 위한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공사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선 매설 공사는 굴삭기를 이용해 도로와 땅속에 있는 암반을 깨부셔야 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사범대학 계단 부근에서 진행중인 학내 태양열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장수영 (과학교육과 4)씨는 “사범대 임용고시준비실까지 소음이 들리고 진동이 느껴져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강지선 (사회학과 3)씨는 “휠체어를 타고 파진 도로를 건너갈 때면 도로의 턱 때문에 큰 충격이 몸에 가해

진다”며 “인문대학에서 교양동을 가기 위해서 공과대학 4호관 근처로 돌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경영사업단은 공사안내 표지판, 전자문서, 제주대 누리집 게시판, 공문서를 통해 이번 공사에 대해 공지했다. 하지만 불충분한 공지로 인

해 불만을 토로하는 대학 구성원들이 많다. 양호재 (회계학과 1)씨는 “이번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몰랐다”며 “이번 공사와 관련한 사실을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등 제대로 된 공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사업단 이근석 실무관은 “이번 공사에 대해 각 부서와 학과에 공문을 보냈으나 공문 내용 중 학생들에게 공사 사실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한편 기상악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대학 구성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근석 실무관은 “당초 2월말까지 지중선로 터파기 및 선로매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소음을 일으키는 공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인터뷰 2012학년도 전체수석 입학 고준예씨

“내 꿈은 약자의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 법조인”

봄의 기운이 터지기 시작하는 3월, 큰 희망과 포부를 갖고 제주대에 입학한 12학번 신입생들이 있어 캠퍼스는 더욱 활기차다. 그중에서도 남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시작을 한 학생이 있어 만나봤다. 2012학년도 수석 입학생이란 타이틀과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한 고준예 (정치외교학과 1) 학생이다.

“처음에 전체수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셨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는 고등학교 생활에 익숙해 대학생활이 얼떨떨하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교수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 같아요. 남들이 다하

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언어영역에서도 평소 읽었던 책들이 지문으로 제시돼 많은 도움이 됐죠.”

대학 입시를 앞둔 후배들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그가 기특하기만 하다. 그는 수능 4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소위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는 성적이었지만 그는 제주대를 선택했다.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 같은 건 없어요. 글로벌시대에 대학서열화에 대한 대다수의 고정관념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총장님께서 입학식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명품대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항상 믿어요.”



고준예 (정치외교학과 1) 씨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그에게는 꿈이 있다. 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다. 그는 “약한 자의 권리도 법에 명시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민성 기자

‘에듀워터’ 대한민국 5대 명강의 선정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에듀워터 (eduWater)’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하 대교협)와 한국교육개발원, SBS가 공동주관하는 ‘대한민국 5대 명강의’에 선정됐다.

전국의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200여개의 우수강의를 대상으로 심사한 이번 행사에서 ‘에듀워터’는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홍익대의 프로그램들과 함께 수상했다.

지난 8일 SBS 목동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수경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원) 원장은 “5개 대학 중 제주대가 유일한 비수도권 대학”이라며 “에듀워터가 전국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원 (컴퓨터교육과) 지도교수는 “최근 ‘대학기 관평가인증’에 이어 또 하나의 패거리를 달성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속시설 탐방 16. 제주코칭리더십센터

“코칭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 심어줘”

학생 대상 코칭 전문가 양성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료 코칭

최근 새로운 상담기법인 코칭이 각광받고 있다. 코칭이란 개인이나 단체의 잠재능력을 찾아 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코칭프로그램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코칭리더십센터 (센터장 김혜연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이다.

자연과학대학 2호관에 위치한 제주코칭리더십센터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지역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코칭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한다. 해결방법을 알려주면 행동 등 겉모습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가치관 및 의식까지 바뀌줄 수 없어 옆에서 지원과 지지를 통해 스스로 바뀌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현재 전문 인력은 12명의 코칭 자격증을 딴 교수, 학생, 직원 등이 있다. 전문 인력들이 코칭을 가르치면



지난달 7일 자연과학대학 2호관에 위치한 제주코칭리더십센터에서 학생이 코칭을 하고 있다.

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제주코칭리더십센터에서는 인력양성을 하면서도 매달 청소년 캠프를 열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누렸다.

올해부터는 개인 활동 뿐만 아니라 팀 활동을 코칭에 접목시켜 팀 내의 사소분쟁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칭프로그램을 배

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경험을 쌓게 해줘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줄 예정이다.

센터장인 김혜연 교수는 도내뿐만 아니라 도와 지역에서도 직접 코칭을 해주고 있다.

김혜연 교수는 “사람들이 코칭을 받고 다시 힘을 낼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코칭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동아리 대동단결’의 장 펼친다

28일부터 학생회관 등지에서

대동풍이가 동아리연합회 (회장 홍성석) 주최로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학생회관과 한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동풍이는 동아리 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별화 되어 있는 동아리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첫날인 28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발대식 및 개회식이 열린다. 식전에는 개막식의 열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게임 이벤트와 공연을 한다. 이와 함께 오후 4시까지 다양한 기획

이 준비된 천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시에는 오프닝 공연이 열린다.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장기자랑이 진행되는데,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동아리별로 참가자를 받아서 장기자랑을 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동아리뿐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오후 4시에는 인디밴드의 공연, 6시에는 고백타임이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는 주점이 열린다

김소영 기자

의전원생 논문 SCI급 논문 게재 화제

오현주, 고이경 (의학전문대학원 2) 학생 (지도교수 윤상필 교수)의 ‘의학교육용 시신에서 PC6에 대한 해부학적 고찰’ 논문이 SCI 등재지널인 ‘Acupuncture in Medicine’ 3월호에 게재돼 화제다.

특히 이번 논문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강의시간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다.

논문 내용에는 PC6 내부에 존재하는 정중신경 및 동맥에 손상을 야기해 침습적 (상해를 입히면서 내부를 처치하는 것) 처치할 때 침 삽입 방향을 뚫목을 향해 비스듬하게 하고 얇은 손목 힘줄근 정도의 깊이까지만 삽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외상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PC6’은 한의학에서 흔히 부르는 경혈 중 내관에 해당한다.



예술디자인대학 현판식 열려

예술디자인대학 (학장 김방희 조소전공 교수)이 지난 19일 인문대학 1호관 건물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허향진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교수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디자인대학의 출범을 축하했다.

술학부에 속했던 미술학부와 음악학부, 산업디자인학부를 통합해 지난 1일 출범했다.

김방희 학장은 “미술학부, 음악학부, 산업디자인학부가 한 단과대학으로 묶여져있지만 건물이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하루 빨리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인문학연구’ 7년 만에 복간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이영호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2005년 중단됐던 학술지 <인문학연구>를 지난 1월 복간했다.

<인문학연구> 제12호의 발간은 통·폐합됐던 인문과학연구소가 2009년 다시 문을 열면서, 모두 3년의 기간을 들여 맺은 결실이다. 인문학의 이해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연구>는 10여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의 논문, 서평, 연구노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영호 연구소장은 “현재 연구소에 필요한 재정이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여러 교수님들과 석·박사님들의 도움으로 복간의 의미에 맞게 발간했다”며 “앞으로 대학이 열악한 연구소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영씨 염색 논문상 수상



강은영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사진)씨가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6회 한국염색가공학회 춘계 학술발표’에서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천연염색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강은영씨는 ‘제주의 재배고사리 부산물을 활용한 면직물의 염색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허향진 총장,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수상 영예



지난 13일 열린 시상식에서 허향진 총장이 ‘2012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허향진 총장이 지난 13일 중앙SUNDAY가 선정하는 ‘2012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에서 미래경

예술디자인대학 신설 대학 조직 개편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인정

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심사위원들 (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부총장)은 허총장이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이라는 비전을 통해 대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예술디자인대학, 국제교류본부 등 신설·개편, 각종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학생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했다.

더불어 “문화교류관, 통합교양강의동, ‘인재양성관’ 건립 추진, 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앙도서관 증축 사업 본격화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 것”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중앙SUNDAY (중앙일보일요판 신문)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JTBC (중앙일보 종합편성TV 채널),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미래경영, 글로벌경영, 지속가능경영 부문 등 13개 부문에서 33명이 수상했다.

피아노 동문연주회 개최

수익금 장학금으로 사용 계획

피아노전공 피아노 동문연주회가 오는 27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동문회가 주최하고 음악학부 총동문회 등이후원한다.

본 연주회의 수익금은 제주대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수자원 관리 선진화 워크숍’ 22일 열려

제주수자원연구단 (단장 양성기 토목공학과 교수)이 ‘제주도 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이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국제교류회관에서 연다.

수자원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제20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수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과 미래 물산업 활용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의 ‘수자원관리 선진화 방안’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의 ‘제주도 지하수자원 현황과 향후 물산업 활용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양성기 제주수자원연구단장이 진행하며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터뷰 ‘이공일이’ 총학생회

학교행정 참여 강화

학생의견 수렴에 역점

-어떤 총학생회를 만들 것인가.
“‘이제부터 공감할 수 있는 일만아라의 이야기’라는 슬로건에 맞게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겨울방학 동안 인수인계 등을 통해 많이 준비했으나 총학생회로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금 인하를 준비하면서 학교에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힘들었다. 출범을 계기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또 열린 총학생회가 되겠다. 행사, 사업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주요 공약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만큼 5.7%를 인하했으나 아쉬운 점도 있다. 특

히 인하 후 등록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학생들이 평의회 참여를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료복사기 설치 등 나머지 공약들도 어느 정도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참여 유도는.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운영위에서 각 위원들로부터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또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돌리거나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또한 홈페이지나 현수막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 특히 중앙자치기구 통합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매년 학생회가 바뀌면서 개편



이공일이 총학생회 정·정준호(법학부 4 왼쪽) 부·정재우(국어교육과 4)

되는 홈페이지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의견수렴도 활발히 해나가겠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 관심 받지 못한 총학생회는 학교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다. 이는 작년 선거 운동본부 시절 총학생회를 준비하면서 늘 해왔던 말이다. 또 중앙자치기구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 과 학생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명지 기자

인터뷰 ‘女子친구’ 총여학생회

‘특별한 사람들의 강의’ 추진

소통하는 총여 건설

-출범소감.

“오전 여학우를 대표해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출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운영해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추진 공약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약은 ‘1만 아라를 위한 특별한 사람들의 강의’다. 한 학기에 한 번씩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해 강연을 열 계획이다. 지금 각 단과대학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강연할 인물들을 추천받고 있다. 또한 한라솔 리모델링 공약은 이미 지난 2월 완료돼 한라솔 내부가 보다 좋은 환경으로 바뀐 상태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회관과 같은 건물에 전선거울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하루빨리 추진하겠다.”

-어떤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싶은가.

“모두가 어울려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총여학생회의 본질적인 역할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들이 아직도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번 출범식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줬다. 비단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참여도 적지 않아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을 지속해



女子친구 총여학생회 정·오상은(정치외교학과 3 왼쪽) 부·오숙경(경제학과 4)

준다면 총여학생회는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구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요즘 제주사회가 시끄럽다. 지역사회의 중요 사안들에 대해 학생들은 당연히 말할 권리가 있고 이때 그것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더욱더 총여학생회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총여학생회 역시 그에 부응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소영 기자

인터뷰 ‘기준하나’ 총대의원회

선거법 현실적으로 개정

바람직한 선거문화 조성

-출범소감.

“총대의원회의 대표가 돼 책임감이 크다. 학생들이 총대의원회를 딱딱한 곳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학생회, 학과대표들에게 다가가 친숙한 총대의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추진 공약은.

“먼저 학과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것이다. 학과대표들은 학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락담당 등 사소한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확대운영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겠다.

또 선거법을 개정중이다. 총선에 맞춰 새로 생긴 선거법을 대학 현실에 맞게 고쳐 중앙자치기구 선거 전까지 공표할 생각이다.” -어떤 총대의원회를 만들고 싶은가.

“총대의원회는 학생회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알 권리를 찾아주는 기구다. 총대의원회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

-지난해 총대의원회 활동에 대해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총대의원회는 프로그램 홍보 등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친숙한 대의원회가 되는 것이 목표다. 때문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학연 위주의 선거는 후보자들이 구도를 만들어 출마하다 보니 총대의원회에서 고치기 힘들다. 하지만 선거 때 많이 문제가 된 인원 동원의 문제는 인원 수 제한을 통해 많



기준하나 총대의원회 정·김진영(경영학과 4 왼쪽) 부·김기완(산업응용경제학과 4)

이 해소시킬 계획이다.

선거운동기간 막판에만 후보자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평소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총대의원회는 딱딱한 기구가 아니다. 학생회, 학과대표들에게 소통하고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총대의원회가 되겠다.” 김동현 기자

인터뷰 ‘Why not?’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에산 확보에 도움

협력국 신설 계획

-출범소감.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 개강 후 본격적으로 바빠지면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수를 경험 삼아 오전 동아리인의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고 일만 아라를 위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동아리연합회로 거듭나겠다.”

-주요 추진 공약은.

“우선 동아리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기획들을 마련하고 있다. 동아리 회장들의 화합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회장단 LTC(지도자 훈련 과정)를 추진했고, 이후로도 동아리연합 MT, 동아리체육대회 등을 기획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있을 동아리연합회 축제인 대동풍이를 통해서도 동아리연합회와 동아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학기당 한 차례 농촌봉사활동과 더불어 매월마다 봉사활동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말 일일차집 운영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동아리 행사에 필요한 인력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국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시험 기간에 간식, 인쇄기, 비상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고 싶은가.

“각 동아리를 묶는 구심점, 나아가 동아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한다. 현재 동아리들이 학과와의 트러블이 잦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외부 협력을 요청할 때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다. 이 같은 동아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동아리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도 힘쓰겠다.”



Why not? 동아리연합회 정·홍성석(일어일문학과 4 왼쪽) 부·박현애(생활환경복지학부 3)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동아리는 대학문화의 꽃인 동시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장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요즘 동아리 문화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스펙쌓기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평소에 해보고 싶던 것을 즐길 수 있다면 더욱 재미있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소영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5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꿈이 있다면 홍콩·싱가포르 능가할 것

운명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JDC의 도전, 명품국제자유도시 건설

변정일 JDC 이사장

제주도는 여행지로 한 번 정도 볼 만하다는 여론이 많다. 대한민국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거주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매력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런데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지난 2002년 정부 정책이 만들어졌다.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법률에 의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는 정부조직이 생겼다.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려면 자연 그대로의 제주로서는 부족하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9월 30일 영어교육도시에 NLCS-Jeju가 개교했다. 영국학교인 NLCS 본교는 영국 13개 주요대학 평균 입학률 기준 상위 5위권내 학교로 영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다. 이렇게 우수한 학교를 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해야 사람들이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앞으로 2년 후면 졸업생이 배출된다. NLCS-Jeju 개교는 단순히 국제학교의 개교의 의미를 넘어 국내 다른 교육기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며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국제 표준으로 적용할 것이다.

주위에서는 이 학교의 학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외국 유학을 보내는 비용을 따져보면 저렴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매해 3만명 정도 유학을 간다. 외국 현지에서 연간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쓴다. 제주에서는 연 4000만원 안팎이다. 영어교육도시를 제대로 만들면 무분별한 조기 해외 유학이 줄어들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해져 유학 수지 적

자가 크게 완화된다. 영어교육도시의 구상은 교육과 생활이 연계되는 영어권 생활환경 조성에 있다. 그러나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된 주변에 꽃자왈이 많다.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꽃자왈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소유로 놔두서는 개발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 JDC에서 대정을 신령리와 구역리 마을 일대를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애초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신화역사공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을 짓는 것이다. 우선 2013년 개관예정인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동북아시아에서 최고의 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미래 첨단산업인 우주와 항공을 테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한 체험형 공간과 전시프로그램, 천문대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아직 구상 단계지만 요트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요트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 지역별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검토 중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만들어진지도 10년이 넘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모색을 피하기 위해 투자유치 성과의 극대화, 제주권전선 강화, JDC의 사회까지 확대 등 3개 분야의 JDC 사업전략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의료, 관광, 첨단 지식 산업 등 6대 핵심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투자자 중심의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체제도



구축, 운영된다. 사업 확대를 위해 6대 핵심 프로젝트와 5대 전략 프로젝트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곧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이다. 최근 용역에서 2022년이 되면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지역을 개방한다면 오는 2018년이면 인구 70만 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주도가 명품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다는 큰 꿈이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 마음으로 오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먼저 친절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해 나간다면 명품국제자유도시가 꿈만은 아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함으로써 JDC의 지속 발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자 하는 것에 미쳐라

정종철 개그맨

충청북도 제천의 한 시골마을에서 자랐다. 학창시절 목회자의 꿈을 꿈 적도 없었다. 학급에서 장기자랑이며 오락부장을 도맡아 했었다. 하지만 방탕한 시절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공부보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술, 담배, 당구장이 더 좋았다. 부모님 속을 참 많이 태웠다.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다. 늦은 밤, 무릎 꿇고 울며 기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착실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외모로 고민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개그맨이 되면 성공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개그맨의 꿈을 갖게 됐다. 당시 저금통을 털어 구입한 미니 카세트로 각종 효과음, 동물 울음소리를 녹음하는 등 피나는 노력 끝에 성대모사의 달인이 되었다.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연습량의 차이일 뿐이다. 오랜 연습 시간 속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잡아 낼 수 있었다.

군대 전역 후에는 개그맨 지망생이 아닌 주방장의 꿈을 키웠다. 연예인이 되려면 소위 뺨과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던 냉면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그래도 나만의 꿈을 접을 수 없었다. 어느날 TV에서 개그 프로그램 을 보다 ‘나도 개그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마침 ‘KBS 개그맨 공채 모집’이라는 자막이 내 눈을 지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면접부터는 자신이 있었다. 최종 3차 면접에서 동상을 거머쥐면서 한 번

의 개그맨 시험 도전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남들은 재수, 삼수에 10년도 준비한다는 개그맨 시험을 단 한 번에 붙었다는 것은 개그맨 지망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자신은 보통 수년 이상을 준비했다면서 너는 한 번에 뽀서 좋겠다는 말을 종종 들곤 했다. 그러나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습해왔고, 연습량과 노력의 양은 어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외모를 원망했지만 모든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극복하고 개그맨이 될 수 있었다.

나만의 ‘열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사진, 낚시, 장난감 수집 등 한 번 쯤 하면 ‘미친다’ 소리를 들을 만큼 집요하게 몰입한다. 사진에 미쳐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기만 25개가 된다. 포토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다. 한참 미쳐있을 땀 안실도 갖고 있었다. 카메라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쓴 돈만 최소한 3억 이상이다. 그런 데 남들은 미쳤다고, 왜 그러냐고 하지만 나는 단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남들이 못했던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했기 때문이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많이 익힌다는 게 아니다. 그 분야를 정말로 즐기고 사랑해야만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두 달 만에 25kg를 감량하며 ‘몸장’ 수식어도 얻었다.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었다. 개그맨 정종철보다는 ‘마뻛이, 육동자’라고 불린다. 그만큼 캐리커atural가 강하다. 아들이 커서 ‘마뻛이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짱이 되기 위한 운동은 필요치 않다.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이 나에게 고마워서 선물을 준다. 그것이 바로 몸짱이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나의 외모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사실 못난 얼굴이지만 내 얼굴이 제일 좋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기회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물방울이다. 노력은 그 물방울이나 빗방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커질수록 잔이나 그릇 또한 마찬가지로 커지게 된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보통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인생의 주인공인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잘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미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쌓여서 이뤄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 미래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다.

권영근 통역대학원장 겸 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

-임명소감.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무위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한 획을 담당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통역대학원의 발전계획과 현안은.
“통역대학원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외국어 부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생



통역대학원을 발전시켜
지역 외국어 인프라 구축

외교원 경쟁력 강화로

교양영어교육의 중심역할 수행

각한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기관임에도 학내외 여건이 불안정해 활성화되지 못해 아쉽다.
통역대학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번역에도 비중을 둘 생각이다. 이룸도 통역대학원이 아닌 통·번역대학원으로 바꾸겠다.
학생 수도 늘려 통·번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교수 확보, 통·번역대학원에 걸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내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에도 가격을 낮추는 노력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
-통역대학원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통역대학원은 대학본관과 외국어교육원 등으로 흩어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 연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 곳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면 인재 육성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어교육원의 발전계획과 현안은.
“외국어교육원이 세워진지는 20년가량 됐지만 아직도 외국어 교양 수업을 전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어인 수업 강화 증설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외국어교육원이 교양영어수업 부분을 모두 관할할 생각이다.
또 제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생각하면 외국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주지역 외국어교육의 중심을 외국어교육원이 맡겠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어교육원의 학생 모집 방안은.
“입소문을 통해 사설학원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외국어교육원이 강사, 시설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생이 잘 등록하지 않는 것 같다.
전단지, 현수막 등 다양한 광고 방법을 통해 학생들 유치에 주력하겠다. 또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원의 교육시스템이 다른 학원들보다 좋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동현 기자

임재윤 취업전략본부장

“맞춤형 취업역량강화로 취업률 향상”

-임명소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주변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확대 개편되는 방향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가 신설된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인



취업자문단 구성 통해
맞춤형 취업지도 극대화

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일자리 늘릴 것

턴 등 도내·외 기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킨다. 학생상담센터는 부분적으로 했던 학생상담 업무를 총괄해 향후 종합 상담센터로 확대할 것이다.”
-학생 참여방안은.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다.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역량강화에 도움되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겠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첫째,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겠다. 홈페이지를 취업정보를 위한 공간으로 개편하고 정기적인 취업관련 뉴스레터 발송, 찾아가는 취업 및 상담지도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김민성 기자

김동욱 경영사업단장

“다양한 노력 통해 자율적 재정 기반 확충”

-임명소감.
“근래 들어 전국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 특히 제주대는 올해 등록금이 5.7% 인하됨에 따라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경영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지만 경영사업단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경영사업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영사업단의 목적은 자율적 재정 기반



발전기금 모금 가속화
기부자 지속적 관리 역점

임대수익사업 확대

예금 수익률 증대 노력

확충이다. 뜻이 있는 분들에게서 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학교 소유의 수익성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익사업 활동을 벌여 제주대가 자율적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경영사업단의 역할이다.”
-운영 중인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학 소유, 발전기금 재단 소유의 부동산 임대·운영수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서귀포연수원, 제주대 병원 부근 상가 건물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외부의 뜻이 있는 분들의 기부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발전기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학교 곳곳에 쓰이고 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인재양성관에 설립하는 것이다. 각종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

을 제공하기 위해 생기는 인재양성관이 바로 발전기금을 통해 지어진다.”
-수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첫째,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관리다.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인 학교소식 전달, 학교 행사 초청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설립 예정인 의학전문대학원 기숙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 학생들의 기숙 여건 발전에 일조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셋째, 은행 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발전기금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요즘 은행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0.1%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내 구성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서 경영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를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김민성 기자

김일한 정보통신원장 겸 원격교육연수원장

“최첨단 시스템으로 편리한 캠퍼스 구축”

-임명소감.
“정보통신원은 우리학교의 모든 학사행정과 교육, 연구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 기관을 책임지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 우리학교가 명품대학으로 비상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보통신원의 발전계획은.
“정보통신원이 발전하려면 소프트웨어



통합서버 구축 통해
연구·교육 환경 개선

모바일 러닝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

와 하드웨어 부분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부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겠다. 하드웨어 부분은 정보통신원의 설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발전시키겠다. 또 최근 전국 대학들이 이러닝 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학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첨단설비를 하루빨리 구축하겠다.”
-임기중 우선시하는 사업은.
“첫째,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다. 이 사업은 교육 및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학내 실습실, 연구실 등에 산재해 있는 컴퓨터 관련 장비를 캠퍼스 단위로 통합해 하나의 서버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IT자원을 간편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게 돼 교육

및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각 단과대마다 있던 서버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전기세, 보안 유지비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겠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인터넷 전화를 도입해 기관의 통신비용을 줄여 재정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학교에도 IP기반의 인터넷 전화를 도입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겠다.
셋째, 모바일 러닝시스템 구축이다. 전국 최초로 구축된 ‘제주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 인프라와 전국대학 이러닝 중앙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운영본부’ 유치를 계기로 기존 PC기반의 학습관리시스템을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해 시공간을 초월한 미래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보통신원은 학생들이 실습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김민성 기자

김봉애 학생생활관장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임명소감.
“현재 학생생활관에는 19개국, 1700여명의 학생이 입주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돌보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입주학생들이 편안한 학생생활관을 만들겠다.”
-학생생활관의 입주문제를 위한 방안은.
“현재 학생생활관은 입주를 원하는 학생들이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



2016년까지 BTL 신축
500명 더 입주시킬 계획

모든 방에 에어컨 설치

식당은 자율배식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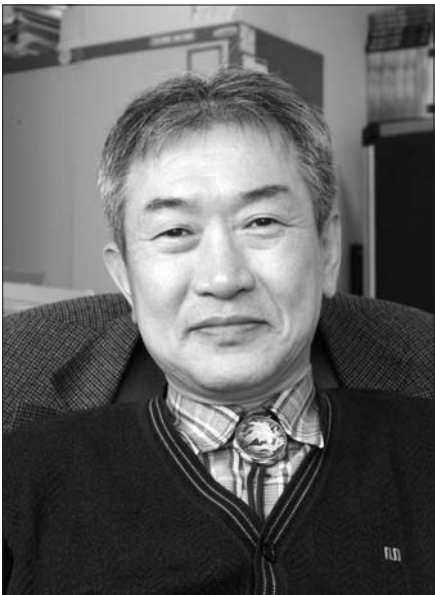
수용률이 낮다. 처음에는 학교 후문 쪽이 개발이 안 돼 있어 여학생들이 위험성을 이유로 입주하지 않다가보니 남학생들만 있었다. 그러다보니 여학생들이 부족한 문제가 최근 심해졌다. 올해 초 독신자 숙소를 여학생 기숙사로 바꿔 40명을 더 입주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남학생은 배정된 입주인원이 아직까지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입주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까지 BTL 기숙사 시설을 250실을 늘려 500명을 더 입주시킬 계획이다.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3~4인실을 2~3인실로 바꾸나 가겠다.”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할 사업은.
“건축 연도에 따라 외벽이 허술하고 방수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다. 외벽 페인트칠, 방수 공사 등 환경개선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또 내부 리모델링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여름방학 전까지 에어컨을 모든 방에 설치해 학생들이 여름 내내 시원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타 국가 입주생들과 서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열렸던 ‘송년의 밤’ 같은 행사를 자주 개최할 생각이다.
올해부터 학생생활관 식당을 자율배식으로 바꿨다. 떠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적어 원하는 양을 먹지 못하고 어떤 학생은 양이 많다 보니 버리는 문제가 있어 자율배식으로 바꿨다.
이 외에도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면 학생들이 요구하기 전에 한 발 먼저 할 생각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편안한 학생생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생생활관에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교성과 리더십을 많이 길렀으면 한다. 학생생활관에서 키운 사교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나가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안기중 공학혁신교육센터장

“학생취업 위한 실용적인 공학교육에 중점”

-임명소감.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외에도 공과대학장, 산업대학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해나가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합심하고 학생들과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역할은.
“대학이 담당하는 최고의 임무는 교육이



더 많은 학과들에게
공학전공 참여를 유도

‘CEO에게 듣는다’

창업부문에 초점

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재 공학교육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공학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체들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벌이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학생들이 각종 트랙 사업을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들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각종 트랙을 운영하면서 여러 캡스톤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학인증은 기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통신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건축공학전

공, 토목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모든 학과, 전공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들에게 공학인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CEO에게 듣는다’라는 특강프로그램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학인증을 따르기 싫어하는 일부 학생도 있는데.
“공학인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할지 안할지 결정된다. 하지만 국제적인 인증이므로 끝까지 해내는 학생들에게는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인증서를 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모든 사업의 성패는 학생들의 참여의지에 달렸다. 학생들이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줬으면 한다. 또한 대학 본부에서도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참여 교수님들이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린다.” 김명지 기자

누가 강정을 4·3이 아니라고 하는가



1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한 평화활동가가 구럼비 바위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그 뒤로 바위를 폭파하기 위한 고공 크레인의 모습이 보인다. <조성봉 영화감독 제공>

정부는 제주도민의 자존을 짓밟으며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 4·3으로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 이제는 43톤의 화약으로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있다. 제주4·3이 현재의 강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역사는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정이 4·3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자들이 있다.

누가 강정을 4·3 아니라고 말하는가. 눈 못 감고 죽어간 영령들이 부름튼 눈으로 강정을 호곡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강정을 4·3 아니라고 말하는가. 4·3에서 평화와 인권을 배웠다는 이들이여, 인권이 낱자히 유린되고 평화가 처참히 깨지는데 왜 강정은 4·3이 아니라고 하는가.

정부는 해군기지 설계 오류에 대한 재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자는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일언지하에 묵살해버렸다. 그러고는 불법업단 운운하는 계계목은 위협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자존은 바람에 날리는 구겨진 휴지처럼 비참하게 바람에 날려가 버렸다.

국가안보라는 무소불의의 힘으로 제주도민들을 고착하고 억압하고 있다. 제주도의 천혜의 자원이나 도민들의 의견은 단지 쓰레기로 취급될 뿐이다. '우리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우리를 벌레로 보지 말라!' 는 강정 주민들의 절규는, '사건의 원인은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 라는 4·3 당시의 미군정의 말에 묻혀 버린다.

그들이 보기에 4·3당시 제주도민들은 파문여야 할 악성 전염병 보건자였다. 대한민국을 갇아먹는 징그러운 해충이었다.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강정주민들 또한 한표 아

“보라, 이 현재화 된 4·3의 현장을! 응원경찰, 통행금지, 해안봉쇄, 무차별 체포연행, 예비검속, 생명의 파괴와 학살, 그리하여 공동체와 제주도민의 자존이 파괴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을!”

쉽지 않은 3등 국민이자 귀찮고 성가신 티눈이나 다래끼 같은 존재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4·3당시에는 무조건 무차별 학살이 자행됐다. 지금 강정에서는 2만 원짜리 경비초에 대해서도 체포 연행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구럼비에 들어갔다고 현행범 체포해서 달랑 2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웃지 못할 코미디다.

보라, 지금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 현재화 된 4·3의 현장을! 응원경찰, 통행금지, 해안봉쇄, 무차별 체포연행, 예비검속, 무수한 생명의 파괴와 학살, 그리하여 공동체와 제주도민의 자존이 파괴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을! 제주도민의 피와 살과 뼈로 기초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강정이 되는 처녀 하나 제물로 상납하라는 이 강요된 국가주의의 참상을!

이렇게 불의의 권력이 폭력으로 억압해도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모든 양심세력들은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들을 저들은 소위 '외부세력'이라 폄하하며 마치 주민들을 선동하는 '전문시위꾼'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부세력이야말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인(義人)들이다.

제주4·3의 광풍이 몰아치던 집단 광기 속에서도 무고한 희생을 막으려 온몸을 던졌던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막기 위해 힘썼던 독일인 '쉴더러'가 있었다면 제주4·3사건 때에는 '김익렬 연대장'과 '문형순 경찰서장'이 있었다. 지금 강정에는 양운모가 있다.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막으려다 구속된 후 무려 71일의 단식을 결행했던 그. 이제 다시 구속된 이후 옥중에서 3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강정 구럼비바위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을 우겨대는 것들에 맞서 묵순 건 창(倡義)의 단식이다. 모든 생명을 위해 자신을 던져 그대로 역사가 되려는 것이다. 이 시대 아원(義)의 부활을 위하여 스스로 아위며 바위가 되려는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라고 말하지 말라. 동시대 팔레스타인에서도 65일 동안 이어진 33세 청년 카데르 아드난의 단식투쟁이 이스라엘의 불법 구금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카데르 아드난을 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며 수많은 이들이 지지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카데르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의 강정은 역사적 현실이다. 눈앞에서 역사가 쌓여가고 있다. 우리의 족적이 그대로 역사가 된다면 먼 훗날 '강정은 평화의 진원지'라고 후손들은 토랑토랑 역사를 읽을 것이다. 그 옛날 제주4·3을 이제 평화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해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형태의 4·3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역사적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인생한 우리의 무력감을 벗기 위해, 또한 제주도의 자존을 위해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자. 우선은 나부터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일주일 단식을 시작한다. 나를 이어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들이 적게는 하루에서부터 많게는 일주일 이상 단식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것은 옥중에서 고립적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양운모와 뜻을 함께 하기 위함이다. 구럼비가 죽으면 그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의 아메리카 인디언의 말, '미타쿠에 오야신'! 바로 그것이다. 제주도의 자존을 위하여 자강불패(自強不敗)의 깃발을 들자. 어디로든 길이 막혀 온통 절망과 죽음뿐이던 그 4·3과는 달리 강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김 경 훈
시인/제주작가회의

제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문화 예술을 통해 도시를 치유하는 건축가

길가에 터죽대감처럼 자리한 초록의 생명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 자리엔 회색으로 빛나는 고층의 빌딩들이 자리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도시는 발전해왔지만 그의 고민과 아쉬움은 커져갈 뿐이었다. '왜 도시는 발전할수록 멋이 없어지고 삭막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건축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부터 이승택(43)씨는 점점 변화하는 도시와 그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양 옆으로 줄 맞춰 서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끝없이 펼쳐진 풀밭. 아무 때나 찾아가 편히 쉴 수 있던 그곳이 바로 제가 살던 서귀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하더니 어릴 적 봤던 아름다운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멋있게 변화하는 서귀포를 보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생각해진 것이 바로 '캘러리 하루'다.

“사실 제가 갑부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부터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캘러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 그분들께서 자극을 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죠.”

그는 어떻게 하면 도시를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마침 그에게 서귀포 갈매마을을 예술적으로 꾸미는 '갈매예술마을'이라는 프로젝트가 찾아왔다. 그는 프로젝트를 하며 '눈에 띄지 않는 작업,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하자'라는 다짐을 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작가적 관점에 빠져 공공미술, 거리 미화작업 등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작업으로 여겨 활동했죠. 도시의 경관까지 해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작품을 볼 때면 작품이 '나 봐줘'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보기 싫은데 자꾸 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압적인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도시적 관점에서 다가가고자 했어요. 도시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작은 행위들만을 했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는 도시에 여러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문화예술이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문제들이 치유될 것이라



이 승 택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대표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 만든 것이 '문화도시공동체 쿠키'다.

“문화를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화, 도시, 공동체를 합쳐 쿠키를 만들게 됐죠. 쿠키는 Cultural의 Cu와 City의 Ci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맛있게 읽은 단어죠.”

쿠키는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 서귀포에서 활동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핍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주시나 서울은 제가 아니더라도 활동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죠. 저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서귀포라고 생각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당히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그는 좀 유별나다. 쿠키는 어디서 활동하든지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키의 가장 큰 매력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위한 일인데 정작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의 역할은 주민들이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신명나게 놀고 자신들의 마을을 직접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의 꿈은 '도시의사'가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를 치유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

“도시의사가 돼서 삭막한 도시를 치유할 거예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재밌잖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걸 즐기며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민성 기자

“기자 (記者)”

명사)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당신은 기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설명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주대신문사 기자는 다릅니다.
제주대신문사 기자는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기사가 활자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 당신은 희열을 느낄 겁니다.
그 희열을 당신도 느껴보고 싶다면, 오십시오.

제주대신문으로

JEJU 1952

제주대신문 60기 수습기자 모집

수습기자가 되면 ...

- A급 장학 혜택 장학금 및 취재로, 원고료, 식비 제공
-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등 해외 원정 취재)
-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 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 을 이용한 신문 편집 교육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보람찬 대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1학년 새내기
전화번호 :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위치 : 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마감 : 4월 30일까지

무론유설



안 성 조
법학과 교수

사람이 아는 바는 모르는 것보다 아주 적으며 사는 시간은 살지 않는 시간에 비교가 안될 만큼 아주 짧다. 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지극히 큰 범위의 것을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도를 깨닫지 못한다. -장자- 필자가 제주대 법전원으로 오기 전 대학 원시절 은사님 한 분께서 나를 부르셨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된 것을 축하해 주시고 동시에 로스쿨에서의 교수방법을 친히 지도해 주시려는 뜻에서였다. 가르침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로부터 자기소개서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학부전공과 직장경력 등을 파악하고 출석부에 간략히 기재해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법전원 학생들은 다체로운 전공과 경력을 갖고 입학하기 때문에

치유(治癒)와 깨달음

공하면서조차 철학이나 뇌과학, 경제학, 심리학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접학문을 법학에 접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현대 그러는 중에 나는 정작 혼란에 빠져 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좀 더 소박하고 일상적인 세계에 눈을 돌려 주어진 법적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했던 것은 아닐는지.

지적으로 정돈돼 있지 못하다보니 내 삶에도 균열이 생겼던 것 같다. 실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만든 경우였다. 은사님의 조언이 법학교수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전문지식에 도움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자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강박관념과 번민이 하나 둘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법전원 학생 중에는 지적 열정이 가득하고 다양한 스펙을 갖춰 성공에 대한 의욕으로 충만한 야심만만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일부는 개인적으로 방향을 하다가

들어온 학생들도 있다. 나에겐 이들 모두에게 올바른 법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나는 학생들이 단순히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유능한 법률가로만 성장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과 주변을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 지적 성장과정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겪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잘 아물기를 바란다.

흔히 제주를 치유의 섬이라고도 말한다. 나는 법전원 학생들이 이기적 성취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미덕을 깨닫고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베풀 줄 아는 삶의 지혜로 학업에 정진했으면 좋겠다. 똑똑한 법률가는 많다. 그러나 존경받는 법률가는 요즘 드물다. 부디 학생들이 법전원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깨달음을 얻게 되길 희망하며 로스쿨 신학기를 맞이해 신입교원으로서 감회와 포부를 짧게 적어본다.

기자칼럼



김 동 현
언론홍보학과 2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는 늘 대학의 화두였다. 그만큼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가지는 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과 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늘 제자리를 뒹뒹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 22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률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연구비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률을 자체히 들여다보면 처우 개선에 대한 방향과 조건만 있을 뿐,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즉 법령을 만들테니 이에 맞는 제정은 대학이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이 법령이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이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온갖 핑수를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강좌 수강인원의 증가, 폐강 기준의 강화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기자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법률안이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과 진정한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임금개선을 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교수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수업, 같은 연구, 같은 학위인데도 절반 수준 그 이하이다. 이는 마치 대기업 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구조와 같다. 대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노동의 질과 시간을 투여

해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차이가 현격한 것처럼 말이다. 정의를 가르치고 이상적 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할 대학에서 현실의 부조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 법령 중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교원인정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다. 현재 한 학기를 기준으로 선정하면 시간강사의 채용기간을 겨우 1년 단위로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기존의 시간강사제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수업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란 말인가. 비정규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법령의 시행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특히 시간강사의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언급자체도 안됐다. 시간강사들은 늘 수업 준비 공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불편한 교육 공간 속에 놓여 어려운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정책이 시간강사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지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다. 시

간강사의 처우에 대한 표면적인 것을 넘어 내부적인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은 법령만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산재해 있는 시간강사 처우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정책을 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 시스템 구축 등 강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직원은 교육의 공급자인 교수와 수요자인 학생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구성원이라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학교 교육을 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런 시간강사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노력은 대학교육의 질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심을



김 수 민
법학부 3

근래 늘어나는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여 보자는 취지에서 인기 한류스타들이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4일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탈북자 강제복송회의에 참여한 것이 이슈화 됐으며, 14일에는 국회의 원들과 인권단체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강제복송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최근 한국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강제복송행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일까?

강제 복송이라 함은 말 그대로 북한과 중국경계지대를 이용해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중국정부에서 잡아들여 북한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강제복송된 북한의 주민은 잔인하게 제거되거나 평생을 인권도 없이 짐승보

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살게 된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강제 복송되는 북한의 주민들은 삼족을 멸하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다.

인권의 주된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인정하는 인권의 뜻은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이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 현장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봐야 할까?

북한 주민들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분리되지만 이들 또한 우리와 한민족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인권문제를 그저 남의 나라의 일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들도 있고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중국정부로 돌리는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이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다가오는 선거용으로 북한의 탈북자 강제복송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글프게 느껴진다. 과연 어떤 세력이 정당일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민의를 앞세우며 진정한 민주인권을 외치는 세력도, 총선에 이르러서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도 진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5조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이러한 예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에서 강제복송된 탈북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지 생각해 보라. 세계인권선언 5조에 탈출송환금지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더라도 탈북자 강제복송은 국제법상으로

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세력들은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의 탈북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총선을 앞에 두고 정치단체는 표심을 얻기 위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보다는 탈북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마련을 대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지금 이 시점에도 탈출하려고 하는 쪽과 이를 저지하고 강제로 송환시키려는 쪽은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탈북자 수용소의 ‘난민’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과거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사자가 낳은 사회적 난민이다. 먼 나라의 일을 지켜보듯 탈북자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뜻으로 이러한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



양 호 재
사회학과 1

보통 고등학생이라면 스무살에 대학생이 된다. 하지만 나는 스물한살에 대학생이 됐다. 재수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재수 생활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 문득 고등학교 때와 재수생활에 대한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본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나의 포부는 대단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서귀포시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다보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니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 그러

다보니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학교생활을 보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능을 보았다. 내게 있어 수능은 긴장의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었다. 철저히 공부하지 않았던 터라 수능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수능의 결과는 뻔했다. 게다가 취약 과목인 언어 영역의 점수마저 평상시보다 더 떨어져 버렸다. 때문에 가군에 쓴 수도권 대학은 물론 나·다군에 쓴 제주대마저 합격하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됐다. 대학입시 실패는 내게 큰 충격을 가져왔다. 수능 성적은 나빴고 믿었던 대학마저 떨어져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1년 늦게라도 꼭 대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고 다

짐을 하고선 재수를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재수 생활은 시작됐다. 학교수업과 수능공부를 병행하던 고등학교 생활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수능공부를 하는 재수생활 역시 힘들었다. 가장 힘든 것은 친구들을 생각할 때였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 자유롭게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며 즐거운 생활을 하는 11학년 친구들을 생각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기숙학원의 통제를 받으며 매일 오지 선다 수능문제를 공부하는 나와 비교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공부야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생각하면서 9개월 간 힘든 재수 생활을 이겨 나갔다. 결국 지난해 11월 10일 드디어 두 번째 수능을 치

렀다. 많은 생각과 결심을 하며 공부한지라 성적은 작년보다 좋게 나왔다. 그렇게 나는 지난 2월 3일 제주대에 합격해 지금은 대학생의 줄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남들보다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스무살에 입학했던 스물한살에 입학했던 나도 이제 대학생이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먼 길을 돌아왔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대학교 때부터의 삶은 나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나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나처럼 먼 길을 돌아 대학생이 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통해 멋진 삶을 살아보자.

동문칼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요즘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문구는 행복과 건강입니다. 이와 관련한 강좌나 제품 홍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누구나 원했던 것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어떨까요? 아마 이보다는 눈앞에 놓인 진로 찾기가 더 우선일 듯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만 20년 전에도 역시 취업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니다.

아마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 노력한 사람들만이 인생의 첫 직장으로서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얻은 분들이 그 후 몇 년 동안 일을 다니다 그만 두기도 합니다. 삶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과 일에 관해 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재주가 있는 자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즐기는 자는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동기과 목표가 분명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다 덜 지치면서 오래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나 고용인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인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나 사회가 만족할 기회가 역시 많아집니다.

한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도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의 상황이 있을 수 있듯이 성격 차이 등 서로 함께 지내기 어려운 분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직장 생활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행복과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일의 능력 외에도 우리에게 사회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또 다른 힘든 과제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오 경 보
영어교육과 97학번
서귀포고등학교 교사

많아지리라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회성 함양의 교육 기회가 더욱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사회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할 기회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끝으로 건강한 삶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종목의 운동을 골라 평생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이는 일의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생활 도중에 큰 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은 평소 삶의 활력과 즐거움도 주지만 때로는 이런 불행한 일을 사전에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즐거운 직업 찾기, 사회성 기르기와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곳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www.careernet.re.kr),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http://www.work.go.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http://know.work.go.kr/)입니다. 이외에 제주 지역의 상담센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여러 성향을 아는 일을 먼저 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찾아 그 일에 용감하게 뛰어드십시오. 분명 이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자는 자신의 삶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희망적으로 보고 타인이 바라는 남의 삶이 아닌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길지 않은 우리의 삶, 여러 분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찾아가 그 일을 즐겁게 하며 사십시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독자의 눈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가?

평상시 신문을 꼼꼼히 보거나 제주대신문 애독자도 아닌 내가 신문을 읽은 뒤의 느낌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난 선택 썰됐다 그랬다. 그건 내가 자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글을 잘 써서도 아니다. 단지 평상시 내가 야끼는 학생의 부탁이었기에 그러자고 했다.

막상 쓰려고 보니 앞이 캄캄했다. 그레도 어쩔 것인가. 약속은 약속, 결국 신문을 정독하게 됐다. 정말 열심히 읽었다. 읽다보니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 기자 한 사람이 쓴 기사가 매우 많았다. 전체 기사 중 독자들이 쓴 기고 부분을 제외 한다면 1/3 정도는 한 기자가 쓴 기사 같아 보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현재 제주대신문 기자는 총 4명이라고 한다. 학교 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학보사 기자가 적다는 것은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우려는 제86호에서 현실이 됐다.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다는 인테뷰와 기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1면 ‘3대 동문가족 찾습니다’ 기사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격요건과 신청방법만을 제시했을 뿐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의 목표가 기사에는



양 정 속
서귀포시지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터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라는 것이다.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신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도 추가 됐다면 독자들이 훨씬 편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알리기 위한 신문인가? 신자유시대에 있어서 정보는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특히 학교 내 학부의 역할은 학교 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학교 밖 정보 중에서도 대학생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각종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도 있다면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미리 알 수 있어 학생들의 목표가 뚜렷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뛰어 정보의 수 집하고 독자들에게 알찬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제주대신문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을 자유주제로 하여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료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수습기자 모집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 4 4 인 인 색 색 ”



1. 명함들

아직도 뜻 깊은 대학생활을 위한 방법을 몰라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신입생들이 많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주대신문의 문을 두드려라. 여기 제주대신문 현직 기자들의 소중한 '무언가'를 통해 학생기자의 의미와 가치를 주목해 보자.



3. 신문 스크랩 파일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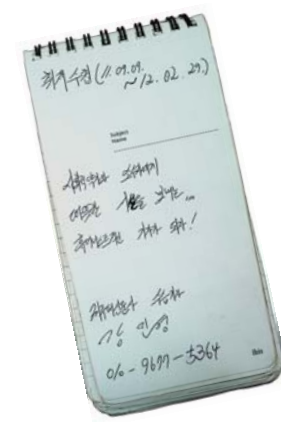
작은 종이더미, 그 안에 깃든 큼지막한 정(情)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나누는 작은 종이 조각리, 명함. 이 조각리 안에는 정(情)이 있다. 손바닥보다 작은 조각리 한 장 한 장이 나옴엔 만원 한 장보다 더 가치 있다. 제주대신문에 입사해 내가 가장 많이 얻은 것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다. 바로 사람이다.

기자들은 자신을 직업의 장점을 물어보면 “거지부터 왕까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직업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기자 활동을 하면서 유명인도 만나봤고, 매일 힘들게 사는 대학생들, 대학의 청소용역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다. 어떤 지위의 사람이든 서로 만나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기자가 가진 최고의 매력이다.



김명자 기자



2. 기자수첩

수첩 속 글귀마다 사람들의 인생이 녹아 있다

지난해 9월,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한 내 생애 첫 취재 수첩. 첫장을 열어보니 짙은 나의 다짐이 적혀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휴머니스트적인 기자가 되자!’ 다양한 분들을 만나 취재할 때마다 항상 그 분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댄스 교실의 아주머니들을 취재하기 위해 함께 춤을 췄고, 난치병 어린이를 취재하기 위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노력했다.

6개월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참 많은 사람이 돼봤다. 제주대신문 기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나같이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주대신문의 문을 두드려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김민서 기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땀과 열정

방대한 양의 신문 스크랩은 끊임없는 고뇌와 연구의 산물이다. 발로 뛰는 줄로만 아는 제주대신문 기자가 사실 신문 지면의 편집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적 감각이나 편집 기술이 부족한 나로써는 또 다른 과제 앞에 부담감과 동시에 은근한 희열도 함께 느낀다.

나의 손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신문 지면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신문이 발간된 날 내가 만든 지면이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쏟아내는 땀과 열정은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떠올릴 수 없는, 제주대신문 기자만이 갖는 즐거움 중 하나다. 도전하고 싶은 자, 기꺼이 신문사로 들어오길 바란다.



김소영 기자



4. 낀고 현 신발

낀 신발 속에 젊음의 열정 묻어나

신문사에 들어오고 6개월 동안 신었던 나의 신발. 뛰어다니면서 찢어지고 흙도 많이 묻었는데..., 이 신발을 보면서 신문사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본다.

처음 신문사에 다른 사람들만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문사를 다니면서 취재를 위해, 학교를 알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지금 돌이켜 보면 신발을 그렇게까지 혹사시키면서 뛰어다닐 필요가 있었나 싶었다. 수습기자로 들어와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 만신창이 신발이 됐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큼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족한 부분을 더 열심히 채워나가야만 정말 신문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나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탐방 '제주어센터'를 찾아

제주어 연구요람으로 다양한 사업 전개

제주어 조사·어미 집대성 사전 첫 발간
“강좌·말하기대회 등에 적극 참여를”

할머니와 대화하다 소통이 어려운 제주어가 나오거나, 타지 사람이나 외국인이 모르는 제주어에 대해 물어온다면? 당황하고만 있었을 당신에게 이제 찾아갈 곳이 생겼다. 바로 제주대 국어문화원 부설의 '제주어센터(센터장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교수)'다. 지난 15일 지역대학의 가치를 연구하고 실현하고 있는 국어문화원 부설의 제주어센터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어의 가치가 이릅니다. 모두가 중요하다 인식하고 있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나 제주대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제주어센터가 문을 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어센터장 강영봉 교수는 제주어센터의 활동이 제주대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제주대의 '지역'과 '대학'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반영해 제주대가 지역대학으로서 제주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또 대학으로서 연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제주어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문제와 맞닿아 있음에도 제주대는 수년 동안 제주어연구에 미온적이었다. 연구기관도 따로 개소되지 않아 제주어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을 모두 국어문화원이 도맡아 왔다.

이에 따라 제주어센터는 지난해 8월 인문대 1호관 2층에 개소해 제주어의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연구활동, 제주어 자료 발간을 목적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또 제주 전역의 구술 자료를 채록하고, 제주어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주어 교육사업과 학술회도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지방방위에 발령받아 온 간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제주어 특강을 열었다. 이렇게 제주어센터는 타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많은 기관이나 제주어 소용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제주어교육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제주어센터는 이번 달 초 첫 자료집으로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을 펴냈다.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은 초대 총장이자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고 현영호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제주어 카드' (<제주도방언연구>의 원고)를 토대로 쓰여졌다. 강 교수는 이 제주어카드 가운데 조사와 어미 카드에 적힌 용례를 다시 정리했다. 여기에 강 교수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현 교수의 작성방법에 따라 다시 작성했다. 이 사전의 특징은 표제항마다 제주어의 용례가 수록됐으며, 표준어 용례도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센터가 개소한 이후에도 제주어연구가 직면한 문제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대학의 재정지원이 미약한 점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연구원을 확보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단적인 예로, <제주어조사·어미사전> 학술자료집을 내는 과정에서 대학은 오직 발간비만

을 지원했다. 사실 학술문화 자료집을 내는 과정에는 조사와 연구, 원고작성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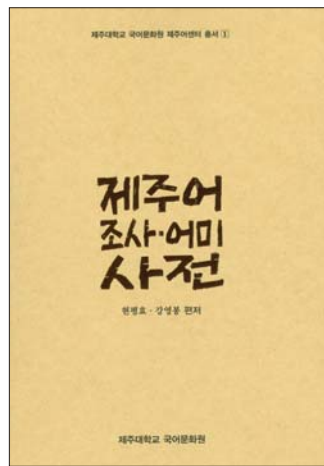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제주어 연구가 매우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제주지역어 생애지수 조사보고서> 따르면, 현재 제주어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빈도수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라 판단,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 등록했다. 강 교수는 “전례적 제주어를 보유하고 있는 70대 이상의 제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20~30년이면 고유의 제주어를 채록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과 학생으로서 제주어를 사랑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주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제주어를 사용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모르는 제주어는 제주어 사전이나 제주어센터를 찾아 직접 공부하는 방법이다. 강영봉 교수는 학생들에게 제주어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제주어강좌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6월에 열릴 국어문화원 주최의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현재 제주어말하기 대회가 수년째 열리고 있지만, 많은 초중고 참여자와 달리, 대학생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제주어말하기 대회부터 대학생 참여자들이 참여해 제주어에 대한 사랑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봉 제주어센터장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박준건 기자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JDC University Academy

대학생 아카데미

기간 ▶ 2012년 3월 6일 ~ 6월 5일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홈페이지 | www.jejusori.net
페이스북 | facebook.com/JDCAcademy
블로그 | blog.naver.com/JDCAcademy

3월 6일

변정일
JDC 이사장
제주도의 용 JDC의 도전 "영동국제자유도시건설" 하고자 하는 것에 미쳐라

3월 13일

정종필
게그맨(유명인사)
세상을 향한 무한도전

3월 20일

서경덕
삼신여대 교수
세상을 향한 무한도전

3월 27일

정지영
"부라전(부사) 장학관(고려대학교 전문교수)
미학자

4월 3일

강태신
불매마크 대표이사 (제주국제도민회)
창상은 내 가슴에

4월 10일

전유호
한림대학교 교수 (속령아대 교수)
당신의 삶에 이기는 습관을 길러라

4월 24일

유명대
남서대학교 교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순환 리더십

5월 1일

고경희
불가불가메이커 대표 (장기하와 알콜)
지속가능한 미디어를 위하여

5월 8일

강규현
3차 자기경영연구소 대표
성공을 바란달 하라

5월 15일

김석범
식물도스트 대표
도전, 함께하는 내일

5월 22일

신상훈
방송작가
창의적 사고를 위하여

5월 29일

이애진
아바문서
선물과 호감을 주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6월 5일

김용택
시인
자연과 나의 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강의 일정표

주최 · 주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목소리